

2017년 5월 14일, 성산읍 신산리 신산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

제보자1 : 김경순(여, 1930년생, 성산읍 신산리)

제보자2 : 김경화(여, 1932년생, 성산읍 신산리)

- 줄거리: 옛날에 급하게 배가 아플 때 잡신 쫓아내는 소리를 하면서 배를 누르면 아픈 것 이 좋아졌다는 이야기이다.

[조사자] 배가 아프던 허문 꽈란이 들렸던 험니까?

[제보자1] 응. 옛날은, 급허게. 이런 배가 아프면 그, 막이 아픈 사름 갈라정 눕져낳이, 손 가락이로 막 돌리주게. 일곱 번을 돌렸어. 웬손 꼬왕, 이디 웬풀 줄라멩 영 꼬왕 누웡 훈잠 자나면이, 배 아픈 거 좋아낫어, 옛날은.

경하고

“꽈란, 이월, 남살, 도살, 드라리꼬, 뜯디, 사슴 다 잡아먹던 송백중 아덜! 어 디라고 범흐느냐! 이 시간으로 곧 떠나라.”

고,

그추룩 입성귀질허면서 그 꽈란이, 이거, 베또롱 둘라그네 웬손 꼬왕 이거 줄 라메영 요렇게 헤여그네 누웡 훈좀 자나면 그 꽈란이가 좋아낫어. 옛날엔, 약도 엇고, 소금물이나.

[제보자2] 그 잡귀, 거세허는 거.

[제보자1] 잡신 쫓아내는 소리, 아까 소리는.

[조사자] 한 번만 더 헤 줍서.

[제보자1] 그거?

“꽈란, 이월, 남살 도살, 드라리꼬, 뜯디 사슴 다 잡아먹던 송백중 아덜!”
송백중이엔 헌 건 배 안네, 충, 회충.

“송백중 아덜. 어디라고 범흐느냐! 이 시간으로 곧 떠나라.”

고.

음, 그러면서 소금물 캉 멱이곡, 그 환자를. 소금물 캉 멱이곡, 이런 뭣고 윈 손, 이런 추례로 안 헤네, 웬손을 꽈그네, 윈풀을 줄라메영, 요렇게 뒤왕, 누웡 에 훈 좀 자라고, 베또롱 둘르곡 헤가민 쪼꼼 배가 늑여 갈 거주게양, 훈 좀 자 나면 그 뻥이 엊어져.

- 핵심어 : 송백중, 소금물, 웬손, 웬풀, 잡신 쫓아내는 소리, 배, 꽈란